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기억이란 무엇일까

글 권택영(경희대 영문과 교수)

커다란 눈망울과 튀어나온 입, 하늘을 바라보는 두개의 콧구멍, 길게 뽑은 목, 잔뜩 무언가를 움켜쥔 앞발톱 다섯 개... 이쯤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아, 이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구나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는 동물과 닮았다. 겉모습만 아니라 속도 닮았다면 화를 내겠지만 수많은 전쟁사를 생각하면 전혀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어서 우리는 인간을 “존재”라고 부른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토록 맑은 눈망울에 강렬한 증오가 깃들어있고 그토록 아름답게 사랑하면서도 금세 미움으로 가득차는 변덕스런 존재. 발톱은 메니큐어로 잘 다듬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잔인함을 쉽게 다듬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탐색하며 예술은 잔인함을 동정과 연민으로 바꾸기에 바쁘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 사랑하는 존재,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 등 여러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 가운데 “기억하는 동물”로 본 사람이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다. 그는 인간이 과거에 받은 상처로 정상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는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였다. 꿈을 분석하거나 기억을 더듬어 대화를 통해 환자의 상흔을 찾아내는 의사가 왜 인문학이나 문화예술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의식을 간섭하는 무의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무의식 없이 인류는 사랑은커녕, 집을 지을 손가락 한 개 움직일 욕망도 느끼지 못한다. 무의식은 신경증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문화와 예술을 창조한 원동력이었다.

최근 여러 분야에 등장하는 무의식은 “기억의 방식”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생산방식은 물론 “우리”와 “그들”이라는 무리를 짓는 심리에 관해서까지 기억의 방식은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 가운데 슬로베니아라는 작은 나라의 사회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1989년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을 펴내어 무의식을 재창조한 독창적 사상가가 된다. 그는 무의식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재해석한 것일까.

신경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는 과거의 상흔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기억을 재생해낸다. 과연 분석가가 밝히는 상흔은 정말 과거의 것인가. 프로이트는 작업을 하면서 찾으려는 진실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부딪치는 현재 욕망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는 늑대의 꿈에 시달리는 환자를 분석하면서 찾아낸 상흔이 아마도 진실이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진 구성일지 모른다고 주석에 적어놓는다. 아무리 정확히 찾아내고 분석해도 인간은 과거를 정확히 복원하지 못하고 현재 욕망에 의해 각색한다는 것이다. 기억은 멈추지 않는 기차와 같다. 기억은 망각의 차가운 땅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시간과 함께 재생하고 변형되는 계절의 흐름이다.

진실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환자와 분석자가 함께 구성한 현재 욕망의 산물이라는 가설은 그 이후 사유체계에 큰 영향을 준다. 데리다는 사후의 결과물이라는 가설에서 ‘디페랑스’(*differance*)라는 개념을 얻어냈고, 푸코는 사후에 세워지는 기원에서 계몽주의 역사를 다시 읽었으며, 라캉은 망각과 재생의 기억을 욕망으로 바꾼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상흔 찾기에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은 지젝이었다. 원래 동구권 출신으로 마르크시즘에 정통했던 그는 바로 동구권이 몰락하던 시점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기억의 방식으로 수정했다. 영웅은 시대의 요구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멸망하고 노동자의 시대가 온다고 믿었다. 그의 이론은 동구권에 의해 실천되었으나 들어맞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잉여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할 욕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잉여가치요, 라캉이 말한 잉여쾌락 혹은 욕망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사용가치”란 상흔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였다. 기억하는 일 자체가 환자를 살게 했듯이 생산은 오직 잉여가치라는 에너지에 의해 움직인다. 잉여가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기를 없애고 살라고 하는 것과 똑같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슬라보예 지젝 지음 | 이수련 옮김 | 인간사랑 | 390쪽 | 값 20,000원

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잉여가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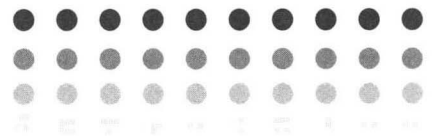
상흔이 대화의 결과로 얻어진 구성물이라는 제안은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혁명적 발상이었다. 흔히 무의식의 발견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바로 기억과 연관된 상흔 찾기에 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아온 모든 ‘인과 관계’를 뒤엎는 발상이다. 상흔이 어딘가에 숨겨진 원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원인이 결과 다음에 온다는 의미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원인이라니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는가. 오늘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이론이란 바로 이 부분의 혁명성을 암시하는 새로움이다.

진실은 숭고하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숭고한 것처럼. 숭고함이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환상이다. 흔히 ‘나는 왜 이를 수 없는 사랑만 하는가’ 생각하지만 사랑의 속성은 바로 닿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게 되어있다. 음식 앞에서 어머니가 “그만 먹고 동생을 위해 남기라”고 말하는 순간 입맛이 사르르 돌듯 금지는 숭고함을 낳는 베일이다. 사랑은 연인을 향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숭고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숭고한 대상 없이 우리는 살아갈 희망도 욕망도 느끼지 못한다. 이데올로기 역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만든 숭고한 대상이다.

지젝의 독창성은 이데올로기가 허구라고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반대하여 이데올로기는 상흔처럼 허구지만 그것 없이는 인간도 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는 헤겔, 셸링, 칸트 등 대륙철학의 맥락에서 라캉을 해석하고 영화나 대중소설에서 그 예를 들면서 위트와 해학으로 진실의 숭고한 베일을 벗기고 동시에 숭고함의 위력을 역설한다.

인간이 기억의 동물이라면 삶은 물과 같이 흐른다. 그렇다면 잠들면 해탈이고 잠깨면 번뇌라는 삶의 고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행복해 지기 위해 산다면 기억의 존재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 저장해놓고 틈틈이 저금처럼 꺼내 쓴다. 오늘보다 어제가 더 나았다는 생각도 과거의 일기장을 들추어보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어제도 똑같은 오늘이었다. 나이가 들어 옛 집을 보았을 때 왜 그리 작아 보이고, 나이가 들어 옛 연인을 다시 만나면 왜 그리 초라해 보이는가. 모두 기억의 요술작용 때문이다.

일생에 단 한 권의 책으로 승부를 낸 호미 바바와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책을 펴내는 지젝은 참으로 대조되는 학자들이다. 누가 더 행복할까. ☞



● 이 글을 쓴 권택영은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영문학 박사를 마친 뒤 현재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 김환태 평론상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감각의 시대: 라캉으로 영화읽기) 《라캉, 장자, 태극기》(잉여쾌락의 시대: 지젝이 본 후기 산업사회) 등이 있다